

꿈을 쭈는 달 창구

★ 독서 활동지 ★

달나라에 사는 꿈수집가들이 들려주는 환상적인 이야기



사를로트 벨리에르 글 | 이안 드 아스 그림 | 이정주 옮김
값 18,000원 | 초등 전 학년

“생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고 싶어도, 그 즐거움을 누릴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땐 어두컴컴한 우주에서 환히 노란빛을 밝히고 있는 달 창구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달 창구에 사는 성실하고 다정한 여자아이는 우리가 냇 놓고 있다가 뒤죽박죽 떠올린 생각 조각들을 소중하게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잘 보관해 줄 거예요. 강렬한 소원, 슬픈 기억, 멋진 기억들을 엉키지 않게 잘 분류도 해 주고요. 멍하니 보낸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어 움츠러들었던 생각들을 훨훨 달 창구로 날려 보내는 시간이니깐요. 달 창구에서는 소홀히 대접받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달 창구에 도착한 모든 생각들은 목은때를 벗겨내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찾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 집필 우서희(서울 잠원초 교사, 《철학 버스》 저자)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꿈을 줍는 달 창구》의 매력



지난 봄, 잠수교에서 열린 뚜벅뚜벅 축제에 갔다가 ‘한강 멍 때리기 대회’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넓은 잠수교에 사람들이 짹짹 들어차고, 지글지글 연기가 피어오르는 푸드트럭에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어요.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축제 한쪽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분홍색 요가 매트 위에 가만히 앉아서, 표정도 지우고, 움직임도 지우고, 말소리도 지운 채 텅 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멍 때리기 대회 참가자들이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을 하는 중이었어요. 멍 때리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의 조각들을 ‘달 창구’로 송송 날려 보내고 있었거든요. 《꿈을 줍는 달 창구》의 장 아저씨가 그 생각이 만들어낸 물건들을 조심스레 옮겨 소중한게 보관을 했을 거고요. 장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긴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거나 뜨고서 생각을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놔두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생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고 싶어도, 그 즐거움을 누릴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땐 어두컴컴한 우주에서 환히 노란빛을 밝히고 있는 달 창구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달 창구에 사는 성실하고 다정한 여자아이는 우리가 냅 놓고 있다가 뒤죽박죽 떠올린 생각 조각들을 소중한게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잘 보관해 줄 거예요. 강렬한 소원, 슬픈 기억, 멋진 기억들을 엉키지 않게 잘 분류도 해 주고요. 멍하니 보낸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동안 짹 움켜쥐고 있어 움츠러들었던 생각들을 훨훨 달 창구로 날려 보내는 시간이니까요.

달 창구에서는 소홀히 대접받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달 창구에 도착한 모든 생각들은 목은때를 벗겨내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찾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서희(서울 잠원초 교사)

학부모,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클럽,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철학 버스》가 있다.

인스타그램: @namuym |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 https://blog.naver.com/namuym_wooseohee

달 창구에서 무슨 일이?

《꿈을 쭈는 달 창구》 표지를 살펴봐요. 별들이 총이 박혀 있는 새카만 우주에 노랗고 환하게 빛나는 달 창구가 있어요. 달 창구 안에는 아저씨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계시네요. 작은 여자아이가 찾아왔나 봐요. 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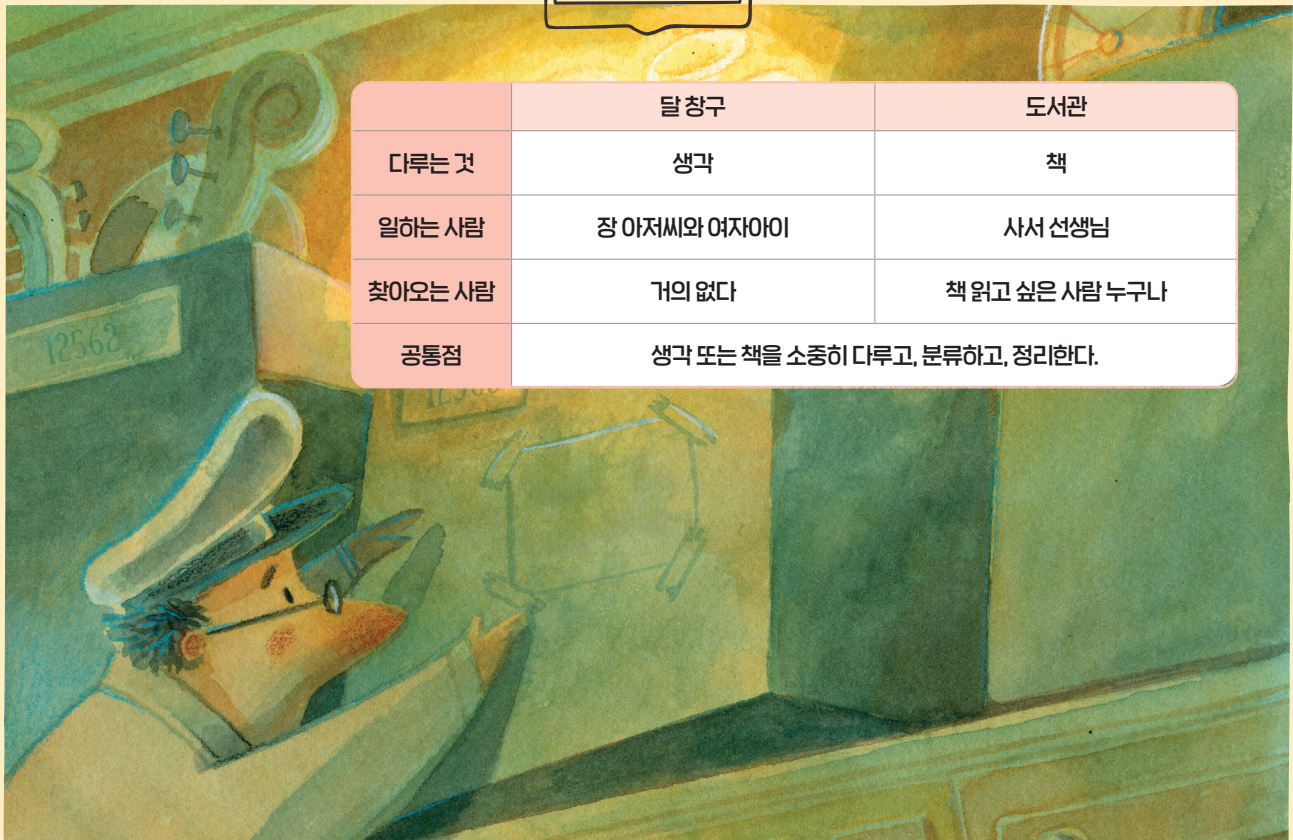


(예시)

아저씨: 안녕하세요, 달 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아이: 화성으로 가는 티켓 하나 주세요.

달 창구 VS 도서관

달 창구 직원은 우리가 떠올린 생각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분류하고, 정리해요.
도서관과 비슷해요. 도서관에서도 사서 선생님이 책을 소중하게 다루고,
분류하고, 정리하지요. 도서관과 달 창구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찾아볼까요?



1 내 생각 적어 보기

	달 창구	도서관
다루는 것		
일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공통점		

달 창구에 떨어뜨린 물건이 있나요?

달 창구에서는 우리가 떠올린 생각들을 주워서 잘 분류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 줘요. 나도 오늘 멍하니 딴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 생각의 조각들이 달 창구에 떨어지면 어떤 물건으로 떨어질까요? 장 아저씨가 잘 찾을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 주세요. 그리고 장 아저씨에게 어떤 생각인지 알려 주세요.



1 내 생각 그린 후, 적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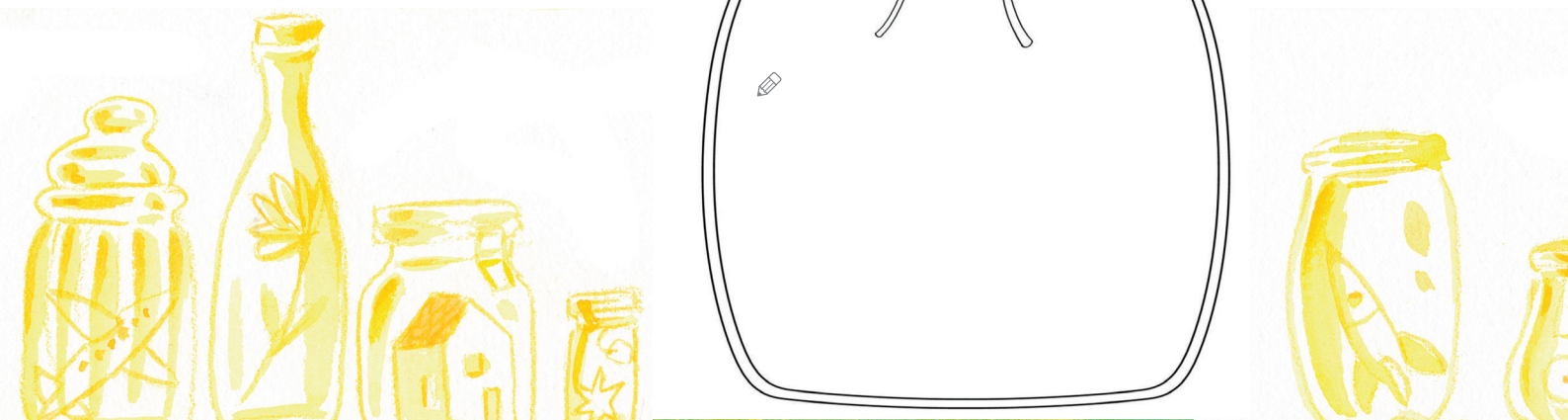


예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땀이 송글 송글 맺히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시원하고 달콤한 딸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소원

달 창구의 새 직원인 여자아이는 특히 소원을 공들여 정리했어요. 잘 보이는 유리 병에 보관했지요. 여러분의 소원을 유리병에 담는다면 어떤 물건을 담게 될까요? 어떤 소원인지 여자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우리 가족 멍 때리기 대회

매년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예술가 읊쓰양이 기획한 대회인데요. 대회 참가자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누가 누가 더 오래 멍 때릴 수 있는지 대회를 열어 봅시다.

멍 때리기 대회 참여 방법

▶ 참가자 할 일

-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 유지하기

▶ 탈락행위

- 휴대폰을 확인하는 경우

- 졸거나 잘 경우

- 웃거나 잡담하는 경우

-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경우

우리 가족 멍때리기 대회
우수상

우승자



우승소감

